<제6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악(惡)의 일어남의 얼개

구연상(숙명여대)

악은 법이나 신의 계율을 어기는 죄(罪)와 똑같은 것도 아니고, 특정한 성질의 마음이 악의 근원인 것도 아니며, 도덕법칙에 거슬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악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이러한 설명 틀을, 그것이 '죄와 악의 동일시(同一視)'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죄악-설명-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틀은 악의 현상(現象)을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누구]에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따져 나가는데 그 초점(焦點)이 맞춰져 있다.

이때 이러한 **따짐의 덜미쇠**(주체이자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것)는 악에 물들 수 없다고 간주되는 **이성(理性)**이다. 이는 사람이 '이성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로 이해되어 온 서양 세계에서는 당연하다. 이성은 참인 앎의 가장 튼튼한 밑받침(토대, 土臺)이자 사람됨의 밑바탕(실체, 實體)으로서 그것 자체가 악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판단과 행위의 결정권자로서 이성이 악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이성에게는 계륵(鷄肋, 닭갈비)과 같다. 이성은 악의 원인을 '잘못된 욕망'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그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는 마치 어버이가 자기 아들딸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만일(萬一, 하다가) 우리가 악의 원인을 '죄악-설명-틀'을 따라 '비난 받을 만한 욕망'이나 '과도한 자기 이익에의 의지'에로 돌리거나 악에 결과에 대한 책임(責任)을 악의 발생을 막지 못한 자유 의지의 탓에로 돌린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악**'을 놓치고 만다. 세상에는 나치즘이 저질렀던 만행(蠻行)처럼 '이성에 근거한 악'도 있고, 인구 증가 및 도시화와 같은 '자기 이익과 무관한 악(구조 악)'도 있으며, '양심에 따라 행한 일에 의해 초래되는 악'도 있고, '마음과 무관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되는 악'도 있다. 게다가 악의 결과가 드러나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악의 결과가 악이 저질러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난다면 누가 어떻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쉽게 가려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때 다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책임 문제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1. 악의 일어남의 세 갈래 뿔

악은 마음속 실체도 아니고, 실체로서의 마음이 갖는 속성도 아니며, 사물 속 흠(欠)이나 결여(缺如) 또는 불완전성과 동일시될 수도 없고, 자유 의지에 의해 잘못 선택되는 행위도 아니다. 악은 마음과 행위뿐 아니라 자연이나 사물 그리고 전쟁도구로서의 무기와 같은 도구와도 관계된다. 악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지고 다른 누군가 그것을 **당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악의 일어남은 마치 꺼져 가던 불씨가 바람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으며, 산사태가 쏟아져 내리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 **잠들어 있던 악**은 그것이 깨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세상에 그 모습을 갖추어 드러난다. 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지만, 온 도시를 태울 수도 있듯 악은 간단히 제압될 수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그 세력을 키울 수도 있다.

잠든 악이 깨어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악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처음의 당하미에게 국한될 수도 있지만, 세상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세상(世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마다의 역사적 세계(世界)를 말한다. 나는 '저마다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누리"라고 부르고자 한다. **누리**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가지런히 잘 가려진 곳,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Kosmos)'이다. 누리는 야만(野蠻)의 세계가 아니라 문명(文明)의 세계이다. 누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좋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다.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가능케 해 주는 마을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누리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누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로서의 악은, 그것이 어떻게든 사람에게 일어난 것일 때, 문제가 된다. 악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것들과 그것의 일어남을 막는 것들 사이의 샅바싸움을 통해 그 모양을 갖춘다. **악의 일어남**에 얽혀 드는 모든 것은 서로 얽힌 채 덩굴을 이룬다. 악의 덩굴에 뒤엉킨 것들은 저마다의 줄기를 뻗어나가려 한다. 이렇게 뻗은 줄기를 "넌출"이라 부른다. 악에 얼기설기 엮인 넌출들은 그것들마다의 **뿔**(특성, 特性)을 갖는다. 뿔은 소와 같은 짐승의 머리에서 뾰족솟거나 사슴에서처럼 나뭇가지처럼 달린 것을 말한다. 뿔은 흔히 악마성을 상징한다.

'**악마의 뿔**'은 그것을 가진 자가 누리는 군주로서의 권력을 상징화한 것이다. 고대의 왕관이나 주교의 관(冠) 같은 뿔 모양 모자는 그것을 쓴 자에게 권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뿔을 나타낸 기호는 행운과 다산, 권력을 가져온다고 믿어졌다. 동시에 그 뿔은 강력한 부정적인 함의까지도 띠는 것이다. 뿔은 야수의 위험성과 아무것이나 치받는 수소, 즉 동물들이 지닌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이질성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뿔은 달과 연관되어 있기에 달(초승달)이 지닌 풍요의 성격뿐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밤, 어둠, 죽음까지도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초승달은 뿔은 연상시킨다. 나이가 뿔은 남근과 수컷의 생식력과 결부됨으로써 또 다른 상징적 힘을 획득하게 된다.[1]

악의 일어남에는 크게 **세 갈래 뿔**이 달려 있다. 첫째는 **마음 뿔**, 둘째는 **흠(欠) 뿔**, 셋째는 **행동(行動) 뿔**이다. 뿔난 마음이나 행동은 거칠고 사나운 모습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는 짓을 말한다. 성이 나거나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불끈불끈 예상치 못한 짓들을 월컥월컥 휘두른다. 길들여지지 않은 뿔은 위험할 수 있다. 악은 '몹쓸 일'로서 세 갈래 뿔의 불뚝거림으로써 일어난다. 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모습과 얼굴 그리고 자세와 힘, 즉 '있는 그대로의 악'을 만나게 된다. 악마(惡魔)는 바로 잠자고 있거나 숨어 있던 악을 깨워 일어나게 하는 부라퀴를 말한다.

세 가지 악뿔 가운데 **흠(欠)**은 결핍(缺乏)이나 결여(缺如) 또는 죄(罪)를 포괄한다. 이것들은 모두 어떤 객관성을 지닌다. 보기를 들어, **고대 러시아인들**은 가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성화

1 제프리 버튼 러셀 지음, 최은석 옮김, 『악마의 문화사』, 황금가지, 2000, 27 쪽.

앞에 물과 빵을 바쳤는데, 이것은 죽은 영혼이 6주 동안 저승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마다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빵을 먹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저승으로 흐르는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들어가지만 때로는 이승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 시체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죽은 혼이 저승에서 돌아오면 곧 재앙이 닥치게 된다.

또 사람들이 죽은 자를 교회로 운반해갈 때 썼던 썰매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앞뒤를 바꾸어 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혼이 뒤쫓아 온다고 믿었다. 자살이나 타살에 의해 죽은 자의 혼은 악마의 포로가 되어 해를 끼쳤기 때문에 특히 더 무서워했다고 한다. 주술사가 죽으면 흡혈귀가 된다든가, 익사한 소녀가 강의 정령이 된다는 세속적 믿음도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흡혈귀 소동은 농촌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흡혈귀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죽은 주술사(마법사)의 가슴에 나무 말뚝을 박아 넣고, 나무 관을 만들어 못을 박아 넣어야 했다.[2]

흠은 누군가 그것을 범하거나 갖게 되는 순간 그에게 언젠가 악한 일이 당하도록 만드는 저주(詛呪)와 같다. **죄(罪)** 또한, 그것이 아무리 마음으로 지은 것일지라도, 흠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벌(罰)이나 화(禍)를 피할 수 없다. **결핍**이나 **결여**는, 그것이 사물의 경우이든 사람의 경우이든, 또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과 관계된 것이든, 보기를 들어, 누군가 온전치 못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것이 부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흠과 죄의 문제는 **리쾨르**의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밝힌 바 있어 여기서는 줄인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흠뿔은 사람의 됨됨이뿐 아니라 제도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흠 있는 제도, 달리 말해,

여기서 우리는 악을 들깨워 일어나게 만드는 세 뿔 가운데 **마음에서 돋는 악뿔**을 밝혀 보고자 한다. 마음뿔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칸트가 악의 원인이자 근원으로 말해 놓은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말에 따를 때 악은 마치 '**썩은 물이 담긴 그릇**'에서는 썩은 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온다. 이러한 생각 틀의 문제점은 첫째, '마음 속 흠'과 '그릇 속에 담긴 썩은 물'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 마음은 그릇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이며, 셋째, 마음은 그릇과 달리 지향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음 속 흠은 마음의 불완전성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 받아 마땅한 마음'을 먹는 것도 마음이다. 도둑질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마음속에 흠이 있는 것이다. 그 '마음 속 흠'은 그 자체로 '종교적 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도둑질로 이어져 남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악의 원인이 되어 악을 불러일으킨 것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흠은, 썩은 물과 달리,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돌이키자마다 깨끗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릇 속 썩은 물은 물리적으로 관찰될 수 있지만, 마음 속 흠은 그것이 말이나 표정 또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한 관찰될 수 없다.

---

2 조주관, 「고대러시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악의 제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제26권), 한국러시아문학회, 2007, 259-260 쪽 살핌.

게다가 **마음**은 생겨나 자라기도 하고 잃거나 병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그 안에 담기는 것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음은 그 닦임에 따라 결이 고울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으며, 그 배움에 따라 앎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그 자람에 따라 어른스럽거나 어릴 수도 있고, 그 맑힘에 따라 좋거나 나쁠 수 있으며, 그 쓰임에 따라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마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몸이 자라는 가운데 쉼 없이 빚어져 나간다. 살아있는 마음은 몸과 소통하고, 말과 관계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함께 나눠 나간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다.

2. 악을 부추기는 마음 뿔의 생김새

나는 악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뿔의 특징**을 찾기 위해 다시 서양철학이 파고들었던 욕망의 문제로 뛰어들 것이다. 이 문제는 신의 창조 문제와 얽혀 있지만, 우리는 **욕망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펼쳐갈 것이다. 악이 마음의 샘에서 비롯되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누리(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마음은 언제나 그 일어난 일에 의해서만 '악의 뿔'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악의 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악한 마음'은 그 마음이 꾀하려는 '일'에 의해 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마음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누리(세계)에는 선도 있고 악도 이다. 이것은 **사실(事實)**, 즉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은 다른 일들로부터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로부터 다른 일들이 비롯될 수 있다. 하나의 일은 이렇듯 앞뒤의 일들 가운데 놓인 것이다. 일의 '**앞뒤-가운데**'는 그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날 수 있다. 살피는 것도 마음이고, 드러나는 자리도 마음이다. 마음은 스스로 살핀 것과 드러난 것을 말글이나 짓(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다르미의 말짓을 통해 그가 살피고 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 고립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마음이 놓여 있는 처지나 상황 또는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고찰(考察)되어야 한다.
마음은 언제나 그것의 임자가 살아가는 누리(세계)에로 **뻗어나가 있다**. 우리가 자신이 사는 곳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가깝게 여기는 것은 눈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다. 멀리 떨어진 연인을 마음속에 늘 품고 다닐 수 있는 까닭도 마음이 자신의 연인이 있는 곳까지 이미 날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누리 속으로 나가 있는 동시에 그 스스로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마음은 그 자신에게 열어 밝혀진 모든 곳에 마음대로 자리할 수 있다. 그곳이 자신의 안이든 밖이든 마음이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마음은 머물기 좋아하는 곳도 있고 싫어하는 곳도 있다. 마음은 자신을 끄는 것을 만나면 그것에 쉽게 끌리기도 하지만 때론 그 어떠한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신의 문제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다. **좋은 신**은 사람들의 어긋난 행위에 대해 그들이 그 행위로써 나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리 말해, 벌을 주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들에게 더 좋

은 한, 한 마디로 말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적으로 벌을 내리거나 고통과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착한 신**은, 그가 언제나 '착한 것(생각, 행동)'만을 행할 수 있는 한, 고통이나 고난이 수반되는 벌을 내릴 수 없다. 착한 신은 언제나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써 사람들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야 한다. **몹쓸 신**은, 그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못된 말과 못된 짓만 일삼을 수밖에 없다.

미루(만일, 萬一) 사람의 **욕망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 사람은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착한 것**이라면, 사람은 오직 착한 것만을 욕망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의 욕망 가운데 '**비난 받아 마땅한 욕망**'을 인정하는 한, 그가 말하는 '욕망'은 '착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책(責)할 만한 욕망'은, 그것이 비록 '악의 불씨(원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아직 '악'이 아니다. 그것은 '칭찬 받아 마땅한 욕망'과 마찬가지로 아직 **악에 대해서는 처녀**(악을 낳지는 않았다)이다.

사람의 '책망(責望)할 만한 욕망'은, 그것이 '악한 행위'를 낳는 한, 악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탄할 만한 욕망**'이 그 자체에서 '악'이 되려면, 그러한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신[부모]에 의해 **금지**된 것이어야 하고, 금지를 어기면 그에 대한 죗값이 필연적으로 닥쳐야 한다. 죄가 곧 악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탓할 만한 성질의 욕망은 누군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 '좋은 신'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써 고통이나 고난과 같은 신벌을 받게 만든다. **신의 뜻을 저버리는 욕망**은 욕망하미 자신에게는 '타낼-거리(탓)'이자 죄 그리고 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위와 관련되기 전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남에게는 아무런 '악행'이 될 수 없다. **욕망 그 자체의 악**은 오직 신에 대해서만 가능한 '**비밀스런 악**'이다.

사람은 그 자신이 모르는 것을 **욕망(慾望)**할 수는 없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미 자신이 그 모름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다. 미루어(만일, 萬一) 누군가 악을 욕망하고자 한다면, 그는 어떻게든 악을 알고 있어야 한다. 거꾸로 우리가 악이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앞을 깐다(전제, 前提)면, 서양 철학의 올바름 원칙에 따라 악이 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 '악'은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이미 '**악한 욕망**'이 앞서 주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욕망이 언제나 그 '바람-거리'를 밑에 깔아야 하는 한, '악한 욕망'의 앞이나 밑에는 언제나 먼저 '**악한 것**'이 놓여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 틀은 욕망(慾望, 바람)과 그 대상(對象, 바람거리) 사이의 **순환**(循環, 꼬리잡기맴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바람(욕망)과 그 거리(바람거리, 대상)의 '**맴돌이 고리**(순환 고리)'는 **겉도는 경우**가 많다. 즉 사람이 품은 모든 욕망(慾望, 마음바람)이 다 실현되는 것도, 또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욕망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는 악한 욕망이 반드시 악한 행위나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다. **욕망과 행위는 서로 어긋날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의 행위(行爲, 짓)가 언제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습관적 행동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 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욕망과 대상 그리고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는 많은 어긋남이 놓일 수 있다. 삶이란 이렇게 욕망과 행위의 **어긋매끼**로 짜여나간다.

의지(意志)는 사람이 서로 어긋날 수 있는 욕망과 행위 그리고 결과 사이의 아귀를 그 자신

이 바라는 뜻(목표, 목적)대로 짜맞춰나가려 하는 **마음다짐** 또는 **마음고름**이다. 마음다짐은 사람이 제 마음을 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단단히 매거나 묶어놓는 것을 뜻한다. 마음이 매이고 묶이는 기둥이 바로 '얻고자 하는 보람', 말하자면,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 뜻이 누군가에게 뚜렷하게 세워지고, 그가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바람**을 가지면, 그는 그 뜻을 이룰 **짓**(행위)을 하고, 그의 한 짓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나 행동을 고쳐먹곤 한다. 고침의 방향은 애를 더 쓰는 쪽일 수도 있고, 바람을 접는 쪽일 수도 있다.

바람과 그 뜻 그리고 할 짓 또는 한 짓, 마지막으로 열매로서의 결과는 **하나의 고리로 맞물린 꼴**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세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바람을 갖고, 거기에 알맞은 실천을 할 때 그 결과는 자신이 뜻했던 바대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엉뚱한 쪽으로 빗나갈 수도 있다. **의지**는 뜻과 바람과 행위와 결과를 누군가의 뜻대로 **맞춰나가려는 마음다짐**이다. 바람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서의 의지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곧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방해물에 꺾이거나 저절로 시들해질 수도 있다. 일은 우리의 마음다짐이 아무리 굳을지라도 잘못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거의 먹지 않은 채로도 운 좋게 쉽사리 잘 되기도 한다. 일의 일어남의 맞물림 꼴은 열려 있다.

마음속에 앞서 세워지는 **뜻**은 옳거나 그를 수 있고, 참되거나 거짓될 수도 있으며, 좋거나 나쁠 수도 있고, 선하거나 악할 수도 있다. 뜻은 사람이 어떤 것, 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으로 먹은 것이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면, 그 뜻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지만, 돕고자 하는 사람이 돕는 대가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뜻의 좋음은 크게 줄어들거나 **위선적(僞善的)**이라는 평가조차 받을 수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의 취지(趣旨)는 좋지만 그 의도(意圖)는 불순(不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뜻이 나타내는 바 자체는 좋지만, 그 뜻을 이루어 얻고자 하는 결과는 결국 돕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꼴**이 된다. 위선적 도우미는 한편으로는 도움의 순수한 뜻으로써 기림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이득까지 챙기는 잇속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잇속 챙기기는 도움의 순수함과는 모순된다. 이러한 의지는 겉으로는 순수함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실리를 얻고자 하는 '**겉발림**(가식적, 假飾的)-**꼴**-**의지**'가 된다.

겉바른 사람의 바람에는 **겉뜻과 속뜻**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다. **드러난 겉뜻**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지만, **숨겨진 속뜻**은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미를 돕는 일 자체에는 모두의 눈에 띄는 겉뜻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그렇기 때문에 남은 그저 겉어림할 수밖에 없는 속뜻이 자리할 수 있다. 이 둘은 같을 수도,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 일이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그 일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즉 그 **바람눈**(불어오는 곳)이 여럿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돕**[겠다는]**바람**'은 불쌍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어떤 명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남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감빠는 잇속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가 조금씩 한데 뒤섞인 것일 수도 있다. 불쌍한 마음에서 불어온 돕바람은 가난하미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그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려는 행동(行動, 움찍, 몸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잇속 셈(계산, 計算)에 따른 돕마음은 철저한 장삿속 행동을 부추기게 마련이다. 바람과 바

람눈 그리고 움찍(행동, 몸 움직임) 사이에는 **추킴의 관계**가 성립한다. 추킴은 멈추거나 가라앉거나 숨죽인 것을 돋워 들뜨게 한 뒤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가 불쌍하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그를 도와야 한다는 돕바람에 크게 **부추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를 도우려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 할 것이다. 하다가(만일, 미루) 이때의 움직임이 거지에게 몇 백 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추킴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실천(實踐)될 것이지만, 도움을 주어야 할 돈이 몇 십 또는 몇 백만 원으로 커진다면, 그 추킴은 도움에 대한 **생각**을 **되새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자신이 그를 **왜** 도와야 하는지, 그 도움에 가치나 높은 뜻이 있는지, 그 결과가 좋을지 등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도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형편 또는 도움의 필요성 정도를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내려질 것이다.

돕는 일은, 그것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의 바람눈이 아무리 본능적 충동에 의한 것일지라도, **의지의 소관(所管)**이 될 수밖에 없다. 의지는 마음다짐이자 마음고름으로서 추키는 바람, 쫓을 만한 뜻 그리고 예상되는 좋은 결과를 **한데 아울러 나가려** 한다. 의지는 모든 일이 바람과 뜻에 맞춰 잘 돌아가도록 다잡는 것이고, 흐트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로이 가다듬는 것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수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 의지는 이루고자 하는 일에 걸린 모든 것을 그 일의 성공에로 잡아끄는 것이다. 의지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힘이자 그 힘에 이끌리는 모든 것을 목표한 일의 성공에로 맞춰 세우는 힘이다.

이제까지의 따지기에 따를 때, 우리는 **마음이 그 자체에서 '악의 원인' 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언제나 마음임자가 태어나 살아나가는 '삶-누리'와 마음 자신이 머물러 사는 '안(않)'의 그 어디로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마음은 그때마다 바람을 품을 수 있는데, 이 바람은 언제나 '바람거리(대상, 對象)'과 맞물려 돌아간다. 바람은 임자가 이루고자 하는 뜻 쪽으로 불 수도 있지만, 그것에 거슬러 불 수도 있다. 바람과 뜻을 맞춰 나가는 게 곧 의지이다. 사람의 마음다짐은 굳을 수도, 무를 수도 있는데, 뜻의 이루어짐은 이 다짐에 크게 좌우된다. 마음다짐은 바람과 뜻의 가운데 놓인다.

'악한 욕망', 즉 '악한 바람'은 그 **바람거리 자체**가 흠이 있거나, 죄를 짓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몹쓸 것인 바람을 말할 뿐, **바람 그 자체가 악할 수는 없다**. 반면 '악한 뜻'은 사람이 '악한 일(것)'을 하겠다고 먹은 마음으로서 그 자체에 악성(惡性)이 들어있다. 악한 뜻을 세운 사람은, 그가 그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다지고, 그의 행동을 막을 게 없는 한, 악한 짓을 감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음다짐으로서의 의지의 선악 문제는 의지 그 자체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질-거리(의지의 대상)'의 선악에 따라 갈리게 된다.

마음의 선악 문제는 그 마음에 의해 세워지는 뜻과 그 마음의 대상들(바람거리, 다질거리)의 선악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선악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선악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펼쳐 갈 것이다. 우리가 악에 대한 새로운 뜻을 매김하는 것은 악의 뜻하는 바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거나 발견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악의 세계가 열린 곳에서만 악에 대한 물음이 가능하듯 악의 뜻매김은 악의 뜻이 밝혀진 자리에서만 마름질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강의에서 앞서 드러난

악의 뜻들에서 다시 출발한다.

3. 악의 뜻과 삶의 본래성: 끊김과 앗김

리쾨르에 따를 때 '**악**'은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위험이다. 미루(만일) '성스러운 것'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래성의 영역이라면, 악은 누군가 '자신의 본래적 성질'을 잃게 만드는 것인 셈이다. 그런데 **본질(本質)의 상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타락(墮落)이나 신에 의한 추방(追放)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만일 성스러운 관계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에 의해 끊겼다면, 이러한 악행은 그 끊긴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마치 없었던 일처럼 덮여 사라질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사람이 신에 의한 심판이나 벌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잃는 경우, 그 본질은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악은 어떤 것이 맺어왔던 성스러운 관계를 끊고, 그로써 그것으로부터 그것의 **본질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가 나중에 그로 말미암은 법적 처벌이나 복수(復讐)를 받을 수 있는 한 잠재적으로는 그 자신에게도 악을 저지른 것이 된다. 악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계된다. 본질은 '본디 바탕'으로서 **자동차 바퀴**를 보기로써 말하자면 굴러감과 같은 것이다. 만일 바퀴가 터졌거나 찢어졌거나 부러졌다면, 그것은 바퀴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악은 이렇게 어떤 것의 **본질을 부수는 것**이다.
어떤 것의 **본질**은 그것의 태어남이나 생겨남을 통해 거저 얻게 된 것이다. 하다가(만약) 어떤 것의 본질이 완전히 부서졌다면, 그것이 다시 태어나거나 생겨나지 않는 한, 그것은 더는 그 자신으로 있을 수 없거나, 비록 그것에게 그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본질 회복에 달렸다**. 만일 악에 의해 해를 입은 본질이 나아지거나 완전히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면, 악은 소멸되거나 용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본질이 끝까지 되찾아지지 않은 채 없어져 버린 경우, 어떠한 용서를 통해서도 그 악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다. 없어진 본질은 그것이 마치 새것으로 다시 주어질 때만 도로 찾아질 수 있다.
저질러지는 악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본질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저지르미**의 본질까지도 허물 수 있다. 저지르미는 그가 양심이 있는 한 자신의 악행에 대한 가책을 받게 되고, 그가 법의 체계가 갖춰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며, 그가 운명이나 섭리를 이해하는 한 응분의 복수나 신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러한 두렴거리는 그 자신이 저지른 악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것으로서 저지르미 자신의 본질을 허물어뜨린다. 악은 그것이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한 본질을 끊임없이 부수거나 허물기도 하고, 이미 잃어버린 본질을 도로 되찾을 수 없도록 가로막기도 한다.
서포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 나오는 사씨 시녀 **설매**는 귀양에서 풀려 황성으로 돌아가는 유한림을 만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다.

"소비는 하늘을 속이고 주인을 저버린 죄가 천지에 가득하오니 한림께서 관대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씨 부인께서는 비복을 사랑하셨는데 불충한 소비가 우둔한 탓으로 교낭자[교씨]의 시비 납매의 꼬임에 빠져서 사씨 부인의 옥지환을 훔쳐 내었으며 교낭자 소생 장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씨 부인에게 씌워서 축출케 하는 계교에 방조한 것이 모두 소비의 죄올시다. 그 근원은 모두 교낭자가 동청과 사통하여 갖은 추행을 일삼으면서 요녀 십랑과 공모하여 꾸민 간계였습니다. (건너뜀) 소녀는 비록 배우지 못한 비천한 계집이나 이런 해괴한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입니다. 또 교낭자의 투기와 형벌이 혹독하여 시비들을 악형으로 괴롭혔으매, 소비도 비록 한때 이용은 당했으나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목숨입니다."

설매는 신분이 낮고, 먹고 살기 위해 종이 되었는데, 교씨와 같은 '포악한 상전'을 만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설매는 본디 '악'에 뜻을 두거나 '악한 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리석은 바람에 교씨의 꾐과 으름(겁박, 劫迫)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일'을 저지르고 만다. 설매는 자신의 최고 상전(上典) 사씨와 유한림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은 한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써 사씨와 유한림의 불행에 일조를 하고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이는 것으로써는 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설매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중에 사씨의 아들 인아를 죽이라는 교씨의 명령을 거스른다.

"교씨가 소비에게 인아 공자를 물에 넣어 죽이라는 명을 받고 강가에까지 갔었으나, 그때 비로소 소비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마 교씨 말대로 할 수가 없어서 길가의 숲에 숨겨 두고 가서 물에 넣었다고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혹 어쩌면 그 인아 공자는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잘 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제 죄의 만분지일이라도 덜어질까 하고 공자의 생존을 신명께 빌어 왔습니다."

설매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사씨의 아들 인아가 살아있기를 빈다. 게다가 그녀는 우연히 만나 자신의 최고 상전(上典) 유한림을 돕기 위해 사씨의 행적을 아는 대로 일러 줄 뿐 아니라, 사씨의 아들에 관한 일까지 자세히 밝혀 주고, 나아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도록 한 교씨와 그의 새 남편 동청[한림의 문객이었음]의 악행과 현재 신분까지 하나하나 아뢰어 준다. 나중에 교씨 앞에 불려간 설매는 자신이 유한림을 만난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다. 하지만 설매는 교씨가 자신이 유한림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교씨에게 맞아 죽을 것을 겁내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어 죽는다.
설매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신분도 여자 노비에 지나지 않는 천한 여자다. 그녀는 교씨가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꾀거나 으르지 않았다면 스스로는 결코 그러한 몹쓸 짓을 저지를 수 없다. 노비 설매는 본디 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본분을 잘 행했을 뿐 아니라 분수를 지킬 줄 알았다. 우리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그것이 설매의 본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녀가 저지른 죄는 그녀가 사씨를 보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상전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수를 잊었다는 데 있고, 그 악은 그러한 본디 모습에서 벗어남으로써 행할 수 있었던 '몹쓸 일', 사씨의 옥가락지 훔쳐서 모함하기, 교씨의 아들을 죽이고, 사씨에게 그 사주의 죄를 덮어씌우기를 저지른 것이다. 그로써 그녀는 자신의 본래성까

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그녀가 자신의 본디 모습을 되찾고자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악은 그가 저지르미든 당하미든 사람에게서 그 본래(本來) 모습을 앗아간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비본래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1927)에서 삶이 되어가는 '살이-꼴'을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모습(양태, 樣態)으로 갈라 보았다. **비본래성(非本來性)**은 사람이 삶의 뜻하는 바를 스스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뒤쫓아 살려는 마음가짐(태도, 態度/ 모양새)을 말하고, **본래성(本來性)**은 스스로의 '바른-마음(양심, 良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우리의 '나날-살이(일상생활, 日常生活)'는 '뒤쫓는 마음'과 '바른 마음'의 다스림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우리는 흔히(보통, 普通) '사람들-살이(세속, 世俗)'로 살아간다.

'**사람들-살이**'는 삶의 비본래적 모습으로서 그 본래성에서 멀어지거나 낯설어지는 것이고, 아울러 '흠(欠)이 있는 삶' 또는 '불완전(不完全)한 삶' 또는 '열등(劣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수'를 몰라 그것을 꾀하려 할 줄 모르거나, 그들이 높수(보다 나은 높은 수)를 알고 있을지라도, 그 수를 포기한 채 자기가 처한 현실이나 현재 상태에 '살-자리'를 마련한다(안주, 安住).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를 때, 이는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바른-살이**'는 제 속에서 울려나오는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꼴로서 '사람들-살이'의 반대다. '**바른-마음(양심)**'은 여래장(如來藏)처럼 순수한 모든 마음이 갈무리되어 있는 마음으로서 '본디 그대로의 마음' 또는 '바르게 깨달을 때 열리는 마음'을 뜻한다. '바른-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들-살이'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그는 다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따름이다. 그도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겪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기쁨과 슬픔을 맛볼 줄 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바른-마음'으로 살아가려 한다.(今)

'사람들-살이'는 그 자체로 '**그른-살이**'는 아니다. 이는 '사람들-마음'이 곧바로 '그른-마음'이 아닌 것과 같다. 사람들의 마음은 바를 수도, 또 그릇될 수도 있다. **바름**이 곧음으로서 '어떤 것이 본디 그대로의 제 모습을 흠 없이 지켜가는 것'이라면, **그름**은 어떤 것이 그 본디 꼴을 잃은 채 그 '바른 모습'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비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만일 바름의 기준이 '바른-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살이'에서의 성공(成功)과 같은 것이 된다면, '바른-살이'는 어떻게든 성공에로 나아가는 삶을 뜻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르다고 말해 주는 바를 따라 삶으로써 제 삶이 올바르다고 믿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로서 제 삶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삶이 실제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묻기가 힘들다. 우리가 비록 저마다의 삶에 흠 또는 그른 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그른-살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채 고치려 하지 않는다. **흠과 그릇됨의 받아들임**(인정, 認定)은 '그른-살이'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러한 올여김(정당화, 正當化)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른-살이'를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고른-살이**'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른값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주저앉는다. 그로써 사람들은 '그른-살이'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바른-마음(양심, 良心)**'이 꿈틀대거나 잠들어 있다. 사

람들이 '바른-마음'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가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그른-살이'가 그릇된 게 아니라 '바른-살이'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 되뇜이 비록 자신이 살아온 '지난-살이'를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결정이지긴 하지만, 그것은 양심이 바라는 **결단(決斷)**은 아니다. 속으로는 '바른-살이'를 살아가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이 외침은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그것도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소리 없는 혼잣말'과 같다.

'바른-마음(양심)'의 **소리 없는 외침**은 이제까지의 삶의 버릇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부르짖는다. '바른-마음'은 '그른-살이'의 정당성을 되뇌는 자신에게 그것의 비본래성과 그것에 가려졌던 본래성을 드러내 보인다. 그때 그동안 숨겨졌던 자신의 삶의 가능성들이 자신에게 환히 펼쳐 보이고, 우리에게는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삶의 길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살이'를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유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나마 이제까지의 '그른-살이'의 족쇄를 끊어내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삶을 마음껏 꿈꿀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결단의 상황**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순간에 맞이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된다. 자신의 '**지난-살이**'는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떠받치는 밑이 되고, 오늘날 꾸려가고 있는 '**이제-살이**'는 한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으로서 역사를 바꾸는 현장(現場)이 되며, 미래에 다가올 '**앞으로-살이**'는 한갓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뿜어져 나오는 심장(心臟)이 된다. '지난-살이'와 '이제-살이' 그리고 '앞으로-살이'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통해 한 꾸러미로 엮인다.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다 간다. 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살이**"라 하고, 남에게 빌붙어 사는 것을 "**더부살이**"라 한다. '**살이**'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꼴 또는 방식(方式)을 뜻한다. '바른-살이'는 제살이뿐 아니라 더부살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한살이(일생, 一生)를 '바른-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름에 대한 고민을 죽인 채 '사람들-살이'를 살 수도 있다. 사람이 사람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살이'는 '**사람살이**'가 된다. 사람살이는 모든 살이들을 한데 꿰어 묶는 꾸러미이다.

우리의 살이는 그때마다 바름과 그름의 '**어느-가운데**'에 놓인다. 우리는 '바른-살이'와 '그른-살이'가 한데 뒤섞인 '세상살이'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날-살이'에서 분명 그 둘을 구분할 줄 안다. 다만 '바른-살이'의 기준이 되는 '**본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들-살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바른-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맞춰 '바른-살이'를 결단한다. 사람들의 결단도, 그것이 결단인 한, 삶의 한살이를 전체적으로 드러낸다. '바른-살이'가 환히 밝혀지는 순간 '그른-살이'도 함께 뚜렷해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바른-모습'을 닮아가려 한다. 사람들의 '바른-모습'에 맞춰진 '바른-살이'는, 그것이 그것 나름의 '그른-살이'에 반대되는 것인 한, 옳다.

그런데 사람의 '본디 모습'과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똑같지 않다. 사람들의 모습은 시대(時代)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공자(孔子)**는 사람의 '본디 모습'을 어짊(인, 仁)에서 찾았

다. 어진 마음이 비록 사람의 '본디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고루 깃들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어짊의 모습은 사람과 자리 그리고 때에 맞아야 한다. 위험한 곳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어진 일이지만, 심심한 사람과 신나게 놀아주는 것도 어진 마음을 쓰는 짓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라서 제 할 일을 스스로 해낼 줄 아는 어른이 된 뒤 끝내 늙어 죽는다면, 사람의 '본디 모습'은 이러한 한살이 내내 거듭 탈바꿈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은 사람의 본모습을 누우스(nous)에서 찾았다. 누우스는 사물의 모든 이치를 깨끗하게 깨달을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의심할 없이 아는 것이다. 깨닫는 힘을 가진 사람은 감각과 지각이 알려주는 것을 넘어 본질과 근거까지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사람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깨달음의 힘을 키우고 닦는 정도에 따라 아는 바가 달라진다. 사람의 '본디 모습'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고 같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삶의 단계나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바른-모습**'은 사람이 그때마다 배우고 익혀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비록 누군가 제시한 '본디-모습'을 자신이 따를 '본디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나아가 그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뒤쫓을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본디 모습'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정한 모습을 피하려 할 수 있다.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꿈꾸었던 '바른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가 그런 모습으로 결코 살고 싶지 않은 '그른-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바른-모습'에 따라 살 때 '바른-살이'를 한다고 믿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났을 때 '그른-살이'를 한다고 믿는다. '바른-살이'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본디 모습'을 갖춰 나가는 삶꼴을 말한다. '본디 모습'은 한 순간에 모두 갖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삶의 굽이와 고비를 돌아가고 넘어가면서 **평생 동안 빚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이 다다른 삶의 때마다 거기에 알맞은 모습을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모두 이루었다면, 그의 '본디 모습'은 **참모습**이 된다. 참모습은 거짓이 없는 모습을 뜻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 주어진 '본디 모습'을 모두 이룬 경지(境地)에 다다랐음을 뜻하기도 한다.

참모습은, 리쾨르의 표현(表現, 나타냄말)을 빌려 말하자면, '성스러운 모습'을 말한다. 그렇다면 '바른-살이'는 '**성(聖)스러운 살이**', 달리 말해, 성스러운 것(본디 모습)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살이를 말하고, '그른-살이'는 그 관계가 끊겨나가는 살이를 말한다. '성스러운 것'은 '슬기 맑힘'으로서의 철학 개념에 따를 때[3] '**보다 나은 것**', 달리 말해, '슬기의 원천(源泉)'과 같다. 사람의 슬기가 저마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줄 앎이라면, '그른-살이'는 슬기가 없는 삶, 달리 말해, '어리석은-살이'가 된다. 어리석음이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등을 올바로 구분할 줄 모르는 데 있는 한, '그른-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택한 '바른-모습'이 실제로는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악이 **성스러움을 파괴(破壞)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보다 나은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악은 누군가로부터 그가 맺고 있던, 그 자신의 보다 나은 가능성과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짓이다. 악이 이렇게 '본디 모습'을 부수거나 어그러뜨리거나 헐어 버리

3 구연상 지음,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 채륜, 2009.

는 것이라면, 악은 '**본디 모습(본래성, 本來性)**'이 앞서 주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람의 본모습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춰진 **본성(本性)**과 같다. 본성이 없는 곳에는 악도 없지만, 본성이 생겨나자마다 악 또한 함께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의 노동 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본성은 **빚**이거나, 아니면 '**거저 받은 것**'으로서 선물(膳物) 또는 은총(恩寵)이라고 할 수 있다.

빚은 빌린 것으로서 빌리미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은총은 베풀어진 것으로서 받으미가 그것을 고맙게 **받아써도 되는 것**이다. 빚과 은총 사이에는 길미(이자, 利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둘은 어쨌든 받는 순간 받으미의 것이 된다. 본모습이 빚일 때 받으미로서의 우리는 그 모습에 **값하는 삶을 살아나갈 의무(義務)**를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의 **길미**(이자, 利子)로 '본디 모습'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태야 한다. 이와 달리 그것이 은혜(恩惠)로 주어진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람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

'**본디 모습**'은 그것이 빚이든 베풀이[베풀어진 것]든 그것을 **가진 자의 것**이 된다. 다만 사람의 참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본디 모습'에 대한 **절대적 권리**(權利/제 몫)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낱 사람'으로서 결코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든 권리는 언제든 침해될 수 있고, 사람은 이러한 침해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력하다. **죽음에 대한 체념**이 그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

하지만 권리가 없는 곳에는 악도 있을 수 없다. 악은 권리(바른-몫)가 생겨날 때에만 자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몹쓸거리들을 퇴치하려 하며, 몹쓸 짓과 몹쓸 일을 용서치 않으려 한다는 사실은 악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곧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저마다의 '본디 모습'에 대한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저마다의 '본디 모습'에 대해, 그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 한, '**주권적(主權的)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이 권리는 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나눌-몫'을 말한다. '**임자-몫**'은 그 몫의 임자에 의해서만 처분될 수 있다. 나머지 사람은 그 몫에 대해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한다. 사람의 본디 모습은, 그것이 그의 '임자-몫'인 한, 그 자신 말고는 그 누구 또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다.

만일 악이 '성스러운 모습'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사람에게서 그의 '본디 모습'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악하다. 만일 사람을 만들어 지은(창조, 創造) 신(神)이 사람에게 그의 '마땅한 몫(권리)'으로서의 '본디 모습'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의 빼먹기(베풀지 않음)는 악하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의 '본디 모습'을 스스로 저버린다(포기, 抛棄)면, 그 또한 악하다. **악(惡)**은 '주어질 권리 또는 주어진 권리'를 깨트리거나 부수거나 빼앗거나 헐거나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짓, 한 마디로 말해, '**앗음**'이다. 앗음은 어떤 것의 껍질(보호막)을 벗겨내어 그것의 알갱이를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앗김을 당한 것은 쭉정이가 되어 버려지거나 썩어지고 만다.

'**악(惡)**'은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를 **끊는 짓**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낳아진 결

과를 뜻하기도 한다. 관계를 끊는 짓은 **악의 원인(原因)**으로서 '본디 모습'을 직접적으로 부수는 것이고, 저질러진 **악의 결과(結果)**는 부서진 '본디 모습'이 부서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다. '본디 모습'이 부서진 그대로 있는 한, 악은 계속된다. 유아 성폭행이 비록 한때 저질러졌을지라도 폭행을 당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서까지 갖은 고통에 시달린다면, 그 악행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의 상태에 놓이지만, 그와 달리 그 아이가 모든 상처가 잘 아물고, 과거 악행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악은 그 영향력을 잃고 그만 사라지고 만다.
만일 악이 끊음, 부숨, 깨뜨림, 허묾, 없앰, 앗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일어남에는 그것의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속해야 한다. 악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악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러한 **저지레**에 의해 악한 결과를 **당해야** 한다. 악에는 그것을 저지르는 쪽과 당하는 쪽이 함께 속한다. 저지르미는 '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당하미는 '저질러진 악의 결과'인 고통이나 불행을 몸소 겪어야만 한다. 악은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를 갖는다. 갓난아이의 발길질은, 그것이 어른의 '본디 모습'에 아무런 상처도 줄 수 없는 한, 결코 악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반면 어른의 발길질은, 그것이 아무리 비의도적인 것이었을지라도 갓난아기에게 치명상을 입힌 한, 악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저지름과 관련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일 누군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대 금융사기를 쳐 엄청난 돈을 벌고 해외로 달아났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기꾼을 '악한 놈'으로 비난 할 것이다. 이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악'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진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악(광주 민주화 항쟁, 용산 사태 등)은 그 피해자들에 의해 '악'으로 선포되지만, 그 피해자들은 '악'의 희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악의 얼개에 '저지름과 당함'이 속하고, 사기꾼과 공권력의 악이 그것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었다면, 그 피해자들 또한 '악'과 무관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런 점에서 악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악에 맞서기: 악의 발견술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행하는 행위'와만 관계할 뿐 '당하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그 까닭은 그가 악을 '비난 받아 마땅한 욕망' 또는 '탓할 욕망' 또는 '흠 있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악을 당하려는 욕망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악한 짓을 당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디 모습'을 잃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앗음 또는 앗김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힘이 없어서 또는 너무 착해서 자신의 '본디 모습'을 빼앗긴 사람은, 비록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악한 짓의 빌미가 됐거나 악의 수단이나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악하다. 만일 누군가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가족이 삶을 버리게 됐다면, 이때 당하미는 조심하지 못했음이나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음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악하다. 식민지 조선은 그 백성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악하고, 이승만 정권은 전쟁으로 국민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점에서 악하다.
그런데 누군가 앗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본디 모습'을 잃은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당하미가 '열악(劣惡)하게' 살아가야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악에 의해서든 남에 의해 자신에게 저질러진 악에 의해서든 어쨌든 악에 의해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악'과 '악에 의해 빚어진 결과'를 구별할 수 있다. 멀어지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악은 '악한 짓(악행)'을 뜻하고, 그로써 멀어진 결과 상태는 '불행(不幸)'을 의미한다. 악행과 불행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악행이 곧바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언제나 악행에 의해 야기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선행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악행이 행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을 진리처럼 말한다.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이 어쨌든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게 아닌가? 거꾸로 착한 짓만 한 사람이 끝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악한 것이 아닌가? 만일 악이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을 의미하거나 불행에 빠져드는 것을 뜻한다면, 악의 개념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칫 그 결과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신에 의한 용서, 즉 관계의 회복은 '악'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선행의 결과로서의 불행 또한 '악'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혼란은 리쾨르가 악의 개념을 '성스러운 것'과의 관계로부터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이 신에 대해 저지르는 악을 '종교적 죄'로 제한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 현상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악 개념'을 쓰면 된다.

나는 악이 '일어나는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악은 저절로 일어는 것은 아니다. 악은 숨겨지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며, 지워지기도 한다. 게다가 악의 기준이 되는 삶의 본래성은 사람마다 또는 사회나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악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악의 기준은 정해져 있기보다 악이 드러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다. 나는 악이 악으로 드러나는 것을 "**악에 맞선 싸움**"의 한 장면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너무도 사소해 보이지만, 악이 어떻게 '악'으로 드러나거나 가려지거나 숨겨지는지를 잘 말해 준다.

누군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직접 알리거나, 아니면 제3자가 누군가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릴 때 '악'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난 '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마련이고, 그 악함의 정도와 피해의 유무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또는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피해가 '악'에 의한 것일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제되어야 한다. 악에 대해 함께 싸워줄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경찰 등이 악을 고발하거나 피해자들의 편에서 악에 맞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당하미들은 악에서 구제될 수 없을 것이다.

악에 대한 싸움은 누군가 악을 '악'으로서 고발(告發)할 때만 가능하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마이크를 들고 가게의 상품을 광고하는 소음을 듣곤 한다. 이러한 종류의 소리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 그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길게 늘어서 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소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짜증을 부리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이 소음은 견뎌줄 만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침을 탁 뱉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 물고 지나가는 남자는 담배연기를 아무렇게나 뿜어낸다. 침이나 담배연기가 비

록 불쾌하긴 하지만 길거기의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록 그러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법에 의거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당하는 불쾌함을 참으려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그 정보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고, 만일 그 정도의 피해를 보상받거나 불쾌함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법에 호소하려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불편이나 시간적-감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남들은 모두 참는데 그 자신만 중뿔나게 피해를 신고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보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불쾌나 불편함을 초래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참을성 한도 안에서 저질러지거나, 간단한 한 마디 사과의 말로써 불러일으켜진 불쾌감을 사그라지게 할 수 있는, 달리 말해, 그 피해가 쉽게 돌이켜질 수 있는 '악'은 '생활의 악'으로서 일종의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지하철 옆 사람의 껌 씹기, 다리 꼬기, 시끄러운 전화 통화 등은,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는 데 큰 인내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하미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한 아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견딜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작은 악'은 관용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작은 악'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저지르미에게 악의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로소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옆 자리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아가씨는 공분을 자아냈고, 지하철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눈 똥을 치우지 않은 여인도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참고 견디고 모른 척 넘어가려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작은 악'을 눈감아 주는 것을 인정(人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어쨌든 '악'은 누군가에 '악'으로 불릴 때 비로소 '악'으로 드러난다. 공지영 작가는 2012년 1월 28일 트위터에 "나꼼수의 비키니 가슴 시위 사건은 매우 불쾌하며 당연히 사과를 기다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1월 21일 「나는 꼼수다」에서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정 전 의원이 독수공방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성욕 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23일에 한 여성이 비키니 차림의 가슴에 "가슴이 터지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글을 새긴 인증 샷을 '나와라정봉주 국민운동본부홈피'에 올렸다. 공 작가는 나꼼수가 부추긴 비키니 석방 운동이 성의 상품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악'임을 주장한 셈이다.
공 작가의 반발은 나꼼수의 지지자인 그녀가 나꼼수의 선정적 방송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 피해는 일단 그녀 자신이 포함되는 여성을 정치적 담론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불쾌함과 관계된다. 이러한 불쾌감은 스치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혼자 삭여도 그만인 수준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불쾌감을 느낀 사람의 수가 헬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꼼수 방송 내용이 공 작가 단 한 명에게라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 내지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악'

으로 지목될 수 있다.
누군가에 의해 '악'으로 드러난 행위는 공동체의 판결을 거치게 마련이다. 공 작가는 나꼼수가 제기하는 수많은 음모론과 정치풍자를 대체로 긍정하는 듯 보이지만, 여성성을 볼모로 정봉주 석방 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나꼼수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집단을 상대로 신랄하고 편파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이는 마치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과 비슷하다. 만일 공 작가가 나꼼수에게 어떤 공정성이나 정의를 요구하려 한다면, 그녀는 나꼼수의 편파성과 악의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 권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군림하는 성향을 갖게 마련이다. 누군가 이러한 편파성, 즉 대안적 권력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 또한 비판 권력을 누리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꼼수가 자신의 추종 청취자를 모욕할 생각이 없다면, 나꼼수는 자신의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누군가에게 겸손해야 하고, 누군가 피해를 호소한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성을 통한 석방 운동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자아낸 게 사실이라면 나꼼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옳다. '악'은 누군가에 의해 고발될 때 비로소 '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지르미로서의 나꼼수는 현재 일종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쉽고, 공 작가는 당하미로서 그녀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약하므로 그녀가 밝힌 '악'에 대한 적극적 응징이 어렵다.
누군가에 의해 던져진 '악에 대한 물음'은 그것이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그칠 때, 또는 그 물음을 가로막거나 거꾸로 저지르미의 반대가 극심할 때, 또는 물음에 던져진 '악'의 타당성이 약하거나 대중적 관심에서 거리가 멀 때,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악에 대한 물음은, 그것이 한번 던져진 이상, 언제든 물 밖으로 솟구쳐 나올 수 있다. 힘 센 자에 의해 저질러진 '악'에 대한 물음은 악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 즉시 대답되지 못하고 역사적 판단에 맡겨지는 수가 많다. 그것은 악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많거나 당하미의 고통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악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일어나는 악과 맞서 싸우길 회피한다면, 악은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아직 '악'으로 자라지 않은 '배 속 악'까지도 손쉽게 세상에 나타나 퍼질 것이다. 게다가 드러난 악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인 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여파(餘波, 피해 너울)를 넓혀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루(만일) 우리가 악의 일어남을 억누르거나 그 퍼짐결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것의 부숨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악의 부수는 힘은 그것에 맞서는 방파제와 같은 것에 부딪칠 때에만 맥을 못 추게 될 뿐이다.
우리는 악이 일어나는 길목을 잘 지켜야 한다. 악이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도록, 이미 들인 발길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에게 경을 치게 해야 한다. 악의 물결이 거세다면 그것은 보다 안전한 쪽으로 돌려야 하고, 재빨리 악의 뿌리들이나 원인들을 끊어내어 그 물결이 잣아들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의 형세(形勢, 우거진 그늘)'를 통찰하는 일이다. 악에 대한 통찰(洞察, 환히 꿰뚫어 앎)은 악을 그 얼개에 따라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달리 말해, 현상학적으로 해체한 뒤 재구성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악의 저지르미와 당하미, 악할거리, 악함의 까닭, 악의 크기와 셈여림 등이 짜임새 있게 드

러날 때, 우리는 악을 그것의 전체성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람들이 악의 피해를 모르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참아 넘기면 그 악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셈이고,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악은 누군가 그것에 맞서 싸우려 할 때에만 '악'으로서 뚜렷해진다. 이는 악이 '선'에 대비될 때 뚜렷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